

## ‘민형배號 통합특별시’ 성장·균형·시민주권 초점 맞춘다

20조 인센티브 활용 성장 전략 본격화  
전담투자기구 설립 첨단산업 기반 확충  
분산 청사운영 원칙...권역별 균형발전  
시민 참여 정책 설계 행정 시스템 구축  
‘대전환기획추진’ 전략 현실화 여부 관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민형배 초대 시장 당선자가 성장통합, 균형통합, 시민주권을 시장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통합특별시 운영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3편

최근 민형배 당선자가 발표한 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원회) 인선에는 첨단산업 육성, 재정 운용, 권역별 균형발전, 시민 참여형 행정체계 구축 기조가 반영됐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0조원 규모의 재정 운용과 권역별 성장 전략,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성장통합 분야에서는 전남의 에너지·농수산·해양 자원과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차·반도체·문화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전환기획위원회에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한 것도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도체와 AI,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민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20조원 재정의 80% 산업 투자’ 구상 역시 성장통합 전략의



**한국대표팀 멕시코 입성 첫 훈련**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6일(현지시간)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치바스 바에 베르데에서 첫 훈련을 하고 있다. 800여명의 현지 축구팬이 관중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첫 훈련에서 태극전사들은 네 그룹으로 나뉘어 미니골대에 슈팅하는 레크리에이션 훈련과 미니게임 등을 소화했다. ▶관련기사 16편 /연합뉴스

핵심 축이다. 민 당선자 측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투자공사 또는 전담 투자기구 설립 등을 통해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 기반 시설 확충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건비, 복지비, 기존 계속사업 등 경직성 지출이 상당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대전환기획위원회가 통합 재원의 성격과 확보 방안, 산업투자 구조, 중앙정부 협력 전략 등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균형통합 역시 통합특별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통합특별시는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서부권·중부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발전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권은 AI, 미래차, 문화·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축을 구축하고 전남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항만·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남 서부권은 해양관광, 수산업, 공항·섬 정

책 중심, 중부권은 에너지, 바이오, 농식품, 혁신도시 기능을 활용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개된 인선이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전남 동부권의 철강·화학 산업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 당선자는 기존 산업 대전환 특별대책위원회와 해양수산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을 추가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사 운영 방식도 균형통합의 상징적 과제 중 하나다. 민 당선자는 “주청사는 없다”며 분산 청사 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기자

### Today

- 첨단3지구 ‘공영차고지’ 12년째 표류 6편
- 농가효자 품목 딸기, 사계절 생산한다 12편
- 아데를린 “미래보다 오늘 현재에 집중” 16편

## 李大통령, 신임 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장관 지명

靑 “AI대전환·모두의성장적임자”  
역대 두번째 여성 총리 탄생 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로 발탁됐다. ▶관련기사 4편

이 대통령은 7일 한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월간 PC라인 기사를 거쳐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물을 물색해왔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프로필

한성숙(59)

- 1967년 경기 출생
- 경기의정부고졸
-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컴퓨터 전문지 편집기자
- 나눔기술 홍보팀장
- 엠파스 창립 멤버,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 NHN 네이버서비스1본부장
-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 유림사업개발대표 - 네이버 고문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국회 인준 시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

연립뉴스

한 후보자와 강 실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물망에 오른 끝에, 한 후보자가 최종 낙점됐다.

강 실장과 정 장관이 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호흡을 맞춰 온 측근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깜짝 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찾아온 경제 활성화의 온기를

국가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번 인선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정보기술(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실장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성과 중기부장관으로서의 경험이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조정식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부의장에 남인순·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경기 시흥을·사진)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276명 중 찬성 277표를 얻어 당선됐다.

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조 의장은 지난달 13일 민주당 당내 투표에서 경쟁자였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며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남인순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부의장은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의원과 박덕흠(4선·충북 보은읍천영동교산)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됐다. /김진수기자

35주년

###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세요!

<p><b>이동할 때</b></p> <p>승용차 5부제(요일제) 참여하기</p>	<p><b>회사에서</b></p> <p>적정 실내온도 준수 (난방 20°C, 냉방 26°C)</p> <p>불필요한 조명 끄기</p>	<p><b>가정에서</b></p> <p>저녁시간(5~8시)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절약하기</p> <p>전기차·휴대폰은 낮시간에 충전하기</p>
<p><b>친환경 운전하기</b></p>	<p><b>샤워시간 줄이기</b></p>	<p><b>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조명은 LED로 교체하기</b></p>
<p><b>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타기</b></p>	<p><b>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b></p>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단